

PUBLIC ART

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WWW.ARTINPOST.CO.KR MAY 2015



세계비엔날레 속 한국작가 60

60 korean artists in the biennales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5

9 771975 643707
ISSN 1975-6437
05



104
201505

Bloomberg Brilliant Ideas

[Introduction]

예술적 공간에서 만나는 Brilliant Ideas



현대자동차와 글로벌 미디어 그룹 블룸버그의 협업 프로그램 <Brilliant Ideas>가 본격 가동됩니다. 블룸버그는 예술로 소통하는 기업으로 그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블룸버그와 <Brilliant Ideas>를 통해 새로운 뜻을 실현합니다. 전세계 예술가들의 독창적 생각과 작업 철학, 예술에 대한 견해 등을 TV 프로그램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권위 있는 비엔날레와 예술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지만 한국에서 쉽게 만나지 못했던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을 어떻게 더 가까이 접할 수 있을까요?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는 어떤 목소리와 표정을 지닌 사람들 일까요? <Brilliant Ideas>에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 라틴아메리카, 중동 등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은 회화와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식의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예술가들이 <Brilliant Ideas>를 통해 들려주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그들이 가진 문화예술적 통찰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TV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이들의 이야기는 그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 세계

곳곳의 우수 갤러리, 박물관, 그리고 작가 스튜디오에서 촬영되며, 출연하는 예술가들에게 충실한 내용을 담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했던 고민과 생각, 예술에 대한 견해 등을 가공되지 않은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보다 더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라믹 아티스트로 터너상을 수상한 영국작가 그레이슨 페리(Grayson Perry), 역시 영국 작가로 삶의 덧없음을 조각 설치 등으로 표현하는 코넬리아 파커(Cornelia Parker)와 2006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공동 대상을 수상한 한국계 미국작가 마이클 주(Michael Joo), 그리고 뉴질랜드의 개념미술작가 사이먼 데니(Simon Denny)가 <Brilliant Ideas>에 초대돼,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립니다. 현대자동차와 블룸버그가 준비한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rand.hyundai.com/ko/art/interview/bloomberg-brilliant-ideas.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Michael Joo <Locale Inscribed (Walking in the desert with Eisa towards the sun looking down)> 2014-2015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2. Cornelia Parker <Neither From Nor Towards> 1992 Arts Council Collection, Hayward Gallery, London